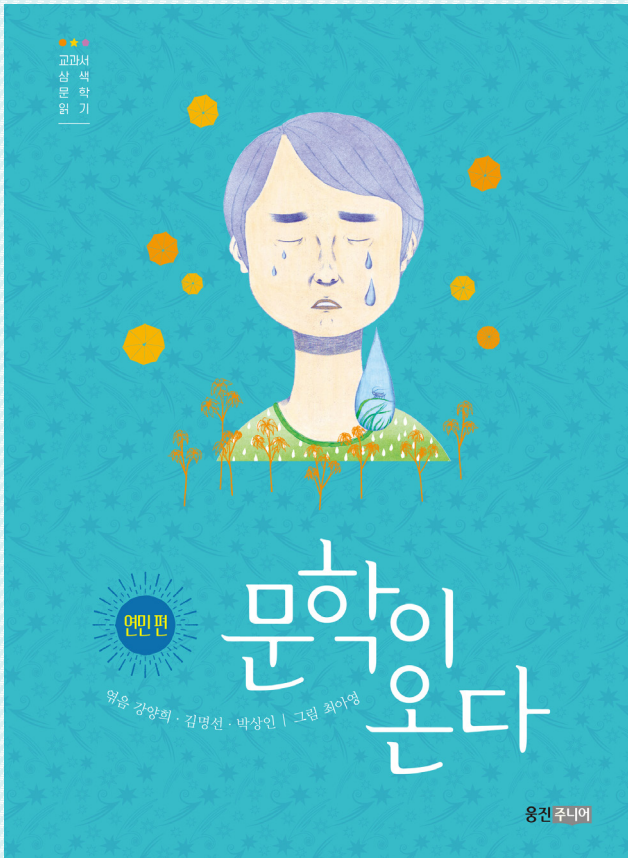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초등학교 6학년

# 문학이 온다 연민 편 독서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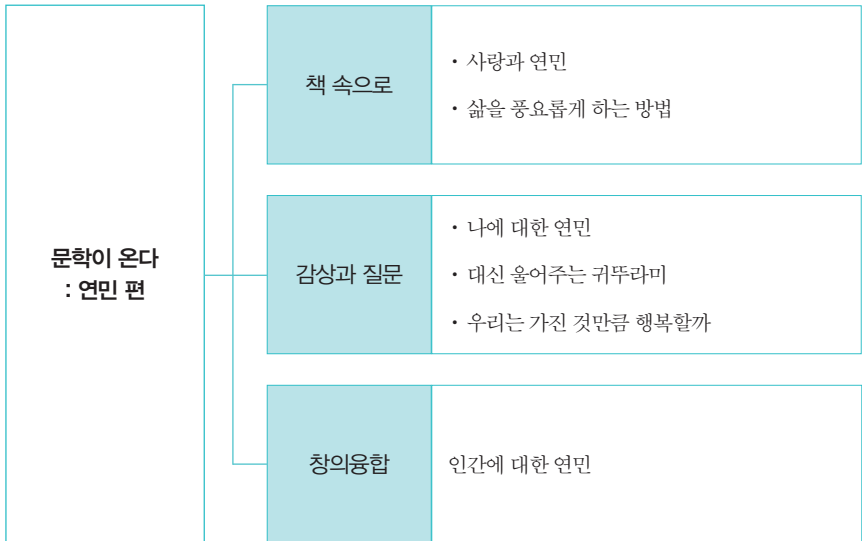
강양희 · 김명선 · 박상인 역음 | 최아영 그림




## ■ 책 소개

『문학이 온다』 시리즈는 현직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려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 고전 문학뿐 아니라 외국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감상 수업’과 ‘질문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감상 수업’은 작품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작품을 읽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상을 제시하는 데 우선하였고, ‘질문 수업’은 독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을 읽으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연민 편’을 읽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주요 독후활동



## 독서전

 **국어 교과 | 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보세요.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2~3) 『문학이 온다 : 연민 편』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문학 작품은 왜 읽어야 할까요?

시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는 이야기가 지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접하며 삶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는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학 작품 읽기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학이 온다』를 펴내며' 중에서


2. 연민은 '다른 사람이나 생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연민의 감정을 느껴보았나요?

⇨

3. '연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예술 작품이 있나요? 영화, 드라마, 음악, 뮤지컬, 문학,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중에서, 연민과 관련이 있는 작품을 소개해 보세요.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학 작품

1. 책의 목차를 읽고, 가장 인상 깊은 문학 작품을 선택해 보고, 그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문학이 온다 : 연민 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이다.  
왜냐하면,

2. 『문학이 온다 : 연민 편』의 등장인물들은 이별의 상처, 그리움, 걱정, 집착 등의 감정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가장 위로하고 싶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책 속으로** ② 말하는 이(화자)의 정서

※ 시 「엄마 걱정」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엄마 걱정

- 기형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열무 삼십 단을 이고

빈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아주 먼 옛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1. 1연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


2. 밑줄 친 ㉠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윗목’이라고 표현했는지 써 보세요.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른 내용 정리


※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고, 주인공인 김 첨지의 하루를 요약해 정리해 보세요. 또한 소설의 구성단계에 따라 김 첨지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써 보세요.

구성 단계	김 첨지의 하루	김 첨지의 속마음
<b>발단</b> 	인력거꾼 김 첨지는 오랜만에 돈을 많이 벌게 되어 병든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 먹일 생각에 기쁘지만, 오늘은 일을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아내 걱정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다.	돈을 벌어서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b>전개</b> 		
--	--	--



<b>위기</b> 		
--	--	--



<b>절정</b> 		
--	--	--



<b>결말</b>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	--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④ 사랑과 연민

※ 소설 「고무신」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보리밭 이랑에서 모이를 줍는 낫닭 울음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울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귀환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철수 내외와 같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 날뽕팔이다. (중략) 그러나 이 단조한 마을, 무료한 아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즐거움은 있었다. 그것은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젊은 옛장수였다. 내려다보이는 아랫마을을 거쳐, 보리밭 사잇길로 이 마을을 향해 올라오는 옛장수는 가위를 췌 깎거리면서, / “자아 옛이야 옛- 맛 좋고 빛 좋은 울릉도 호박엿- 처녀가 먹으면 시집을 가고 총각이 먹으면 장가를 들고-.” (중략) / 옛장수가 마을 앞까지 채 오기도 전에 아이들은 벌써 길목에 쭈 모여 서서 개선장군이나 맞이하듯 기다리고 섰다.

(나) 철수 아내는 보통이 한 개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남이에게 꺾속말로 뺨을 일러 주고…… 이래서, 남이는 떠나간다. 다만 한 가지 철수 내외에게 수수께끼는 마을 중턱에서 남이를 보내고 서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는데, 남이가 어이한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것이다. 더구나 한 번도 신지 않은 새것을……. / 철수 내외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도로 물어본달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다. 보리밭 사이 조그만 언덕길로 옥색 고무신을 신은 남이는 갔다. 자지내 골짜기로 꽃놀음을 가는 줄만 알았던 남이가 난데없는 영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옛장수는 울음고개 위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남이 자신이야 알 리도 없었다.

1. 윗글 (가)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구절을 모두 찾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

2. 윗글 (나)의 내용으로 보아, 남이에게 ‘옥색 고무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3. 「고무신」은 1940년대 말 가부장적인 질서가 확고한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이 아버지는 딸의 생각도 묻지 않고 신랑을 정해 딸을 시집보내려고 합니다. (나)의 결말 부분에서 아버지를 따라 떠나는 남이를 바라보며 옛장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뒷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

## 독서 후

### 💡 책 속으로 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

※ 『문학이 온다 : 연민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수박끼리 - 이응인

수박이 왔어요 달고 맛있는 수박  
김 씨 아저씨 1톤 트럭 짐칸에 실린 수박  
저들끼리 하는 말  
형님아 밑에 있으이 무겁제, 미안하다. 께안  
타, 그나저나 제값에 팔리야 될 긴테. 내가 똥

값에 팔리는 거 싫다. 내 ㉠ 별건 속 알아주는  
사람 있을 까다 그자, 그래도 형님아 헤어지마  
보고 싶을 까다. 간지럽다 코 좀 고만 문대라.  
그래, 우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  
나는 기라.  
털털거리며 저들끼리 얼굴을 부비는 수박들.

(나) “딱 다섯 장밖에 없는데, 필요한 사람?”

지금까지 그 엽서가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녀석들은 엽서 한 장 가지려고 가위바위보까  
지 한다. 우리 아이들이 가진 게 좀 더 부족했으면 좋겠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똥이 될 만큼 아  
끼는 대상이 없다.

국어책 학습 활동에 ‘자기네 가족이 가장 아끼는 물건 세 가지 써 보기’ 과제가 있었다. 식구들  
과 이야기해 보고 써 오라고 숙제로 냈다. 나도 내가 아끼는 것들을 적어 보았다. 할머니가 쓰시  
던 칠보 비녀, 단하가 그려 준 내 초상화, 장 선생님이 구워 주신 도자기 연필꽂이, 지은 씨가 선  
물해 준 팽과리 채……. 우리 반 아이들이 적어 온 시연은 뭘까. 무척 궁금했다. 기대와 달리 아  
이들은 대부분 빈칸을 채워 오지 못했다. 써 온 아이들도 간혹 있었지만 소파, 냉장고, 자동차 같  
은 것들이었다. 사소하지만 나만의 사랑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 없었다. 결핍이 없는 곳에  
는 풍요함도 자리할 수 없는가 보다.

1. (가)의 밑줄 친 ㉠ ‘별건 속 알아주는 사람’은 수박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여  
러분은 누군가 자신의 정성이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 서운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의  
경험과 생각을 써 보세요.

⇨

2. (나)에서 작가는 “결핍이 없는 곳에는 풍요함도 자리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 독서 후

### 💡 감상과 질문 ① 나에 대한 연민

※ 소설 「너도 하늘말나리아」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바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 주던 엄마의 사랑에 익숙해져 있던 바우에게 아버지의 덩덤한 사랑은 성에 차지 않았다. 아버지보다 차라리 자신만 보면 쓸어 주고 두드려 주던 소희 할머니가 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중략) 그때까지도 바우는 아버지가 늘 바쁘게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니까 엄마 생각 같은 건 할 틈도 없을 거라고 여겼다. 아버지가 엄마 산소를 자주 찾는 건 아버지 자신의 말대로 습관일 뿐이야. 바우는 자기 혼자만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 “엄만 네 아빠와 헤어지면서 내가 딸이라는 사실에 많은 위안을 받았어. 아직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고 엄마의 친구가 돼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엄말 미워하는 걸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네 아빠한테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 좋은 남편이 아니니까 좋은 아빠도 아닐 거라는 엄마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엄마랑 사는 것이 힘들면 네 아빠한테 가도 좋아.”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인 듯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미르는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쿵쿵 쳐대는 것 같았다. 아빠와 엄마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1. 바우와 미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바우와 미르가 서로에게 조언의 말을 남긴다면 뭐라고 할지 써 보세요.

미르가 바우에게	바우가 미르에게

2. 자기 자신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자신의 입장을 정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자기 연민은 문제가 (된다)고 /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 독서 후

### 💡 감상과 질문 ② 대신 올려주는 귀뚜라미

※ 『문학이 온다 : 연민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너한테 떡장수라고 했던 건 내가 떡을 좋아해서, 그리고 네 이름이 장수라서 그랬던 거야. 저, 정말이야.” /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에 걸린 떡이 내려갔을 때처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장수가 날 때린 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라는 걸 소문내지 않을 거예요. 장수가 숨기고 싶어 하는 동안은 말입니다. 장수가 잠시 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 “떡장수 할머니가 네 할머니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나는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 “야, 촌놈. 오늘도 떡장수랑 한판 붙어 볼래? 게임으로 말이야.”

장수가 날 툭 치며 웃었습니다. 장수가 날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장수 입에서 나온 촌놈이란 말이 아주 정겹게 들렸으니까요.

나)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 정호승	해마다 가을날
울지 마	밤이 깊으면
엄마가 돌아가신 지	갈댓잎 사이로 허영게
언제인데	보름달 뜨면
너처럼 많이 우는 애는	내가 대신 이렇게
처음 봤다	울고 있잖아

1. 윗글 (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장수가 자신을 ‘촌놈’이라고 부르는 데도 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

2.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

3. 위의 시 (나)에서 귀뚜라미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에게 그만 슬퍼하라고 위로합니다. 만약, 울고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귀뚜라미처럼 올려주는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

## 독서 후

### 💡 감상과 질문 ③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

※ 수필 「무소유」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아차! 이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별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별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길로 돌아왔다. 아나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執着)이 괴로운 일.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산에 오르는 계절)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 하고 말았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뒤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 비로소 나는 엄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뚝 흥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흥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無所有)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1.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물건과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써 보세요.

나에게 소중한 물건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
1.	1.
2.	2.
3.	3.

2. 윗글 (가)에서 글쓴이는 오히려 물건을 많이 가지면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글쓴이와 생각이 같나요? 아니면 물건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3. 여러분도 소중하게 아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 써 보세요.

⇒

## 독서 후

### 창의융합 인간에 대한 연민

※ 소설 「양반전」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건륭 10년 9월 며칠에 이 증서를 만든다. 양반 아무개가 관곡 천 석을 꾸어다 먹고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같은 고을의 평민 아무개가 그에게 ‘양반’의 신분을 사는 대신 관곡을 갚아 주었다. (중략) 일단 양반이 되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 지금부터 그것을 일러둔다. 먼저 양반은 절대로 더러운 일은 하지 않아야 하고, 옛 성현의 높은 뜻을 숭상하고 본받아야 한다. 양반은 오경에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꿇어앉되, 눈으로는 코끝을 슬며시 내려다보고 발뒤꿈치로는 엉덩이를 괴어야 한다. 그런 자세로 꼳꼳이 앉아 「동래박의」를 얼음 위에 표주박 구르듯이 술술 외워야 한다. 양반은 배고픈 것을 참아야 하고 추운 것도 견디어야 하며, 가난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한다. (중략) 양반은 손으로 돈을 만지는 법이 없고, 평생 쌀값이 얼마인지 묻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하고, 맨상투 바람으로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중략)

(나) 군수는 기꺼이 증서를 고쳐 써 주겠다고 했다. 고쳐 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중략) 양반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글만 조금 공부하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는 진사가 된다. 문과에 급제하면 흥패를 받는데, 이것은 길이가 두 자도 안 되지만, 이것을 받게 되면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으니 돈 자루라 할 만하다. (중략) 설사 가난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산다 해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빌려서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양반을 욕할 수 없다. (중략) / 부자는 질겁한 듯 소리쳤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듣고 보니 그 양반이라는 것이 맹랑하기 짝이 없소이다. 아무래도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본데, 그런 게 양반이라면 하고 싶지 않소.” 부자는 혀를 내두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는 줄행랑을 쳐 버렸다.

1. 「양반전」의 작가 박지원은 체면과 걸치레만 중요시하며,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는 부도덕한 모습의 조선 후기 양반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조선 후기 양반과 같은 계층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

2. 윗글 (나)에서 부자는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유와 함께 적어 보세요.

# 예시답안과 가이드

## ■ 독서 전

### 1. (예시답안)

- 인물 :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어떤 슬픔과 상처가 있는지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꽃들이 주인공의 이픔을 위로하고 있는 듯하다. 문학 작품집의 주제가 ‘연민’인 점으로 보아,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 또는 생물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는 과정이 그려질 것 같다.
- 배경 : 표지의 귀퉁이에는 ‘교과서 삼색 문학 읽기’라는 단어가 있다. 표지의 배경은 하늘 색에 가까운 연한 파랑이다. 맑게 갠 하늘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죽음이나 우울함을 파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민’이라는 주제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 같다. 과거에 파랑은 비싼 염료 가격 때문에 아무나 이용하지 못한 색깔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청바지처럼 대중적인 의복에 사용되는 색이라는 점에서 친근하게 느껴진다.

### 2. 답안 생략.

(가이드) 누군가의 고통, 불행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맹자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이르며,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다친 사람을 보면 약을 발라주고 싶은 마음도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 3. (예시답안)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 「두 명의 프리다」가 떠오른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을 자화상으로 표현했다. 죽음을 앞둔 여인의 모습에는 작가가 느꼈을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하다.

# 문학이 온다 연민편

## ■ 독서 후

### ❖ 책 속으로 ①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학 작품

1. (예시답안) 『문학이 온다 : 연민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얼굴 반찬」이다. 왜냐하면 가족, 친척, 이웃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들도 서로 바빠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늦은 시각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엄마는 식사를 같이 하지는 않으셔도 내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얼굴 반찬」이라는 시를 읽으며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2. (예시답안) 내가 가장 위로해 주고 싶은 인물은 「박각시 오는 저녁」의 말하는 이(화자)이다. 말하는 이(화자)가 표현하는 고향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하다. 저녁밥을 먹은 사람들이 뒷산으로 올라가 바람을 쐬면, 풀밭 위에는 잘 마른 빨래들이 너풀거리고, 하늘에는 작고 빛나는 별이 가득한 모습. 말하는 이(화자)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풍경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시골 풍경을 같이 찾아보고 싶다.

### ❖ 책 속으로 ② 말하는 이(화자)의 정서

1. (예시답안) 「엄마 걱정」의 1연에는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열무를 팔던 어머니의 고달픈 삶과, 혼자 빈 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말하는 이(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말하는 이(화자)는 자신의 서글픈 모습을 찬밥에 비유하며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2. (예시답안) 윗목은 불길에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말하는 이(화자)는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차가운 윗목처럼 느끼고 있다.

### ❖ 책 속으로 ③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른 내용 정리

(예시답안)

# 예시답안과 가이드

구성 단계	김 침지의 하루	김 침지의 속마음
발단	인력거꾼 김 침지는 오랜만에 돈을 많이 벌게 되어 병든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 먹일 생각에 기쁘지만, 오늘은 일을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아내 걱정에 발걸음이 무겁다.	돈을 벌어 마음이 넉넉하다.



전개	운수가 좋아 계속 손님들이 줄을 이어도 김 침지는 웬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아내만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계속되는 행운에 마음이 불안하다.
----	--	--------------------



위기	김 침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친구 치삼이를 만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어렵게 번 돈을 던지고, 아내가 죽었다고 친구에게 말하더니 자신의 거짓말에 친구에게 속았다며 웃기도 한다.	집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고,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죽음을 예감하고 회피하려 한다.
----	--	--



절정	설렁탕을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간 김 침지는 불길한 침묵을 느껴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무시무시한 정적을 느끼며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다.
----	---	-----------------------------



결말	김 침지는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을 확인하고 통곡한다. 오늘이 운수가 좋은 날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가장 운수가 나쁜 날임을 알게 된다.	김 침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린다.
----	---	---------------------------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문학이 온다 연민편

## ❖ 책 속으로 ④ 사랑과 연민

### 1. (예시답안)

〈비유적 표현이 쓰인 부분〉

-‘귀환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 : 귀환 동포는 일제 강점기 이주 또는 강제 동원으로 해외에 거류하다가 돌아온 동포를 의미한다. ‘누더기’처럼 산다는 것은 귀환 동포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선장군이나 맞이하듯’ : 싸움에서 이긴 장군을 맞이하듯, 동네 아이들이 옛장수를 열렬하게 환영하여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2. (예시답안) 옥색 고무신은 남이와 옛장수를 만나게 해준 매개체이며, 남이가 마을을 떠날 때 신고 간 것이다. 남이와 옛장수의 사랑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별을 상징한다.

3. (예시답안) 옛장수는 남이가 낫선 영감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이의 고향 마을까지 뒤따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남이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보내려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옛장수는 남이의 아버지에게 남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다. 남이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식모로 일만 했던 남이에게 연민을 느껴,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 물어보고 옛장수와의 결혼을 허락했을 것 같다.

## ❖ 책 속으로 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

1. 답안 생략. (가이드) 나의 가치와 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노력했다면, 누군가 나의 가치를 봐주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나, 정성껏 키운 화분이 시들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마음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2. (예시답안)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기회가



# 예시답안과 가이드

많지 않다. 결핍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가진 게 많으면, 그만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자신만의 사랑이나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도 없게 된다.

## ❖ 감상과 질문 ① 나에 대한 연민

### 1. (예시답안)

미르가 바우에게	바우가 미르에게
바우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는 명환이네 엄마를 보면서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 힘들어 했잖아. 아빠도 너처럼 엄마를 그리워하는 한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	미르야, 아빠가 재혼을 하셔도 네 아빠인 건 변함이 없어. 그래도 넌 아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 또 너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 2. (예시답안)

- 자기 연민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지나치게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점점 나약한 생각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도 하늘말나리아」의 미르처럼 자신의 고통만 과도하게 부각하고,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 자기 연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연민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나의 잘못을 비난할 수 있어야 변화도 가능하다. 자기 연민은 나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이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 연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 ❖ 감상과 질문 ② 대신 올려주는 귀뚜라미

1. (예시답안) 「촌놈과 떡장수」의 주인공은 도시로 막 이사를 와서 학교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촌놈’이라고 불리며 놀림을 받는다. 하지만 (가)에서 장수와 주인공은 남들이

# 문학이 온다 연민편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친구로서 서로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주인공은 '촌놈'이라는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인 장수가 별명을 불러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꼈을 것이다.

## 2. (예시답안)

- 친한 친구라면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함께 한 친구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고 있어서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서로의 허점을 털어놓는다면 오히려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더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친한 친구라 해도 자신의 약점이나 비밀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밀을 말하고 나면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까 봐 걱정하게 되어 친구 사이가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3. (예시답안)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친구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다. 물론 함께 슬퍼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감상과 질문 ③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

1. 답안 생략. (가이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두 다를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대로 생각해 봅시다.

## 2. (예시답안)

- 물건을 많이 가지면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물건을 고르고, 사고, 보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든다. 또한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 망가졌을 때는 더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 예시답안과 가이드

-물건을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그 물건을 소비할 때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물건을 사는 형태로도 표현하고 있다. 좋아하는 음식, 문화를 소비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예시답안) 아끼던 색연필이 있었다. 친구가 준 귀한 선물이었는데, 교실에서 친구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반으로 부러져 버렸다. 친구들이 사과를 했지만, 자꾸 친구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힘들었다.

## ❖ 창의융합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

1. (예시답안) 자전거를 스스로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우선 노력하자, 그래도 안 되거든 본능에 맡겨 보자.'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자전거 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 본능이란 어떤 경험이나 학습의 과정 없이 처음부터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론 노력을 통해 기술을 다듬을 수 있겠지만, 도전을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자신의 본능을 믿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나'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에 성공한 경험을 통해 이후에 시와 춤, 노래와 암벽 타기, 그리고 사랑 등이 모두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2. (예시답안)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은 독서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나와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라는 수필에서 '나는 자신이 친구 없이 무서운 사막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본다. 앞으로 중학생이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정이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작가의 말에서 교훈을 얻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마음을 열고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나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 응진 주니어

값 14,000원



74800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